

## 국가별 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가공업체 Astral Foods, 가금류 생산 중단으로 수익 급감

로이터통신은 Astral Foods의 이익률이 9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Astral Foods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생산비를 상승시킨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현재 남아공은 노후화된 화력발전 시설(Eskom)을 정비하지 못해 국가 전체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가장 큰 육계회사 중 하나인 Astral Foods는 매주 약 6백만 마리의 닭을 가공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육계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주요 이익 척도인 HEPS는 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1.42란드(0.0828달러)로 전년 동기 14.20란드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Astral Foods는 Eskom(국영전력회사)의 전력 차단으로 인해 2023년 1분기부터 육계 회사들의 심각한 운영 중단을 겪고 있으며, 불규칙하게 공급되는 전기는 환기 시스템, 도축 일정, 닭고기 가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축 일정이 늦어지면 추가되는 사료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The Poultr site]


**인도**

계란 5천만 개 수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사상 최대의 수치인 5,000만 개의 계란을 수출했다. 말레이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료 가격 급등으로 생산력이 하락해 수입 계란이 필요했고, 최근 몇 달 사이 세계 주요 공급국의 계란 생산량이 줄면서 인도의 업체들은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 인도 Namakkal에 본사를 둔 Ponni Farms의 공동 관리 이사인 Sasti Kumar는 “말레이시아는 처음으로 인도산 계란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고, 2023년 상반기에도 인도의 말레이시아 계란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는 12월 말레이시아에 500만 개의 달걀을 출하했으며 1월에는 1000만 개, 2월에는 1500만 개를 출하하였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축산농민협회 Tan Chee 회

장은 정부가 보조금을 늘렸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계란 생산량은 몇 달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The Poultry Site]



## 미국

### 장 건강에 좋은 사과 사료 연구

Cornell 대학의 연구에서 부화하기 전 계란에 사과를 주입하면 닭의 장 건강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연구원들은 계란 배아의 양수에 사과의 즙과 찌꺼기를 계란 내부에 주입시켰다. 실험결과로는 병아리의 단백질 흡수 능력 증가, 철분의 생체 이용률 향상, 대장에서 미생물 개체군 증가, 유익한 장내 세균의 증가라는 긍정적 반응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사과에는 장 건강과 장내 미생물 군집을 도울 수 있는 피토케미칼과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은 생리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사과협회에 따르면 거의 175,350톤의 사과 찌꺼기(섬유질 폐기물)가 매립지에 버려진다. 이 사과 찌꺼기의 당분은 토양의 탄소-질소 비율의 불균형을 야기해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 Elad Tako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도 사료의 영양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보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연구가 사과 사료의 잠재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he Poultry Site]



## 일본

### 기록적인 AI 살처분 수수



출처: 연합뉴스

일본은 대규모 조류 독감 발생으로 약 천만 마리의 새를 살처분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2020년의 기록인 987만 마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일본의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의 Zen-Noh는 “발병으로 육계와 계란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달 계란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줄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농림부에서는 암탉의 사료비 상승과 조류독감이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번 AI 발병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의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체 발병 건수는 58건으로 2020년 시즌 동안 기록된 52건을 넘어섰다. [CNN] **양계**